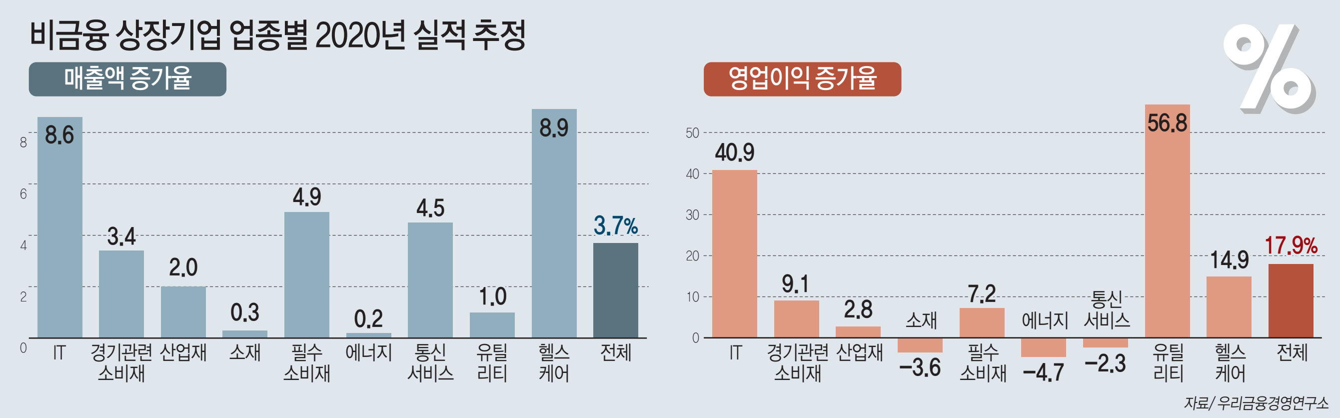
# 코로나에 감염된 기업이익… 상반기 영업익 5% 급감

**2020년 기업실적·업황 전망**

### 장기화될 경우 연간실적 악화 우려
### 반도체·IT, 전체 실적 개선 견인
### 소재·에너지·통신 영업익 감소 추정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화학과 철강, 정유, 유통, 호텔·레저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올해 연간 실적도 악화될 수 있다.

2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2020년 기업실적과 주요 산업의 업황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금융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1분기에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관련 영향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운송과 화학, 철강, 정유, 유통, 호텔·레저 산업 등이다.

항공과 해운은 상반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항공수요는 위축됐고, 중국의 물류 통제로 물량이 급감했다.

화학·철강·정유는 비중이 높은 중국의 수요 둔화로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수출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과 호텔·레저업은 내수 소비 둔화로 매출 성장세가 부진하고, 당초 기대됐던 중국의 수요 개선의 효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수진 수석연구원은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이벤트가 종료되면 주요 제조업 생산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이연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실적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마무리된다면 2020년 비금융 상장기업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7%, 17.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7, 2018년 2년 연속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IT 업종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83%를 차지하며, 특히 반도체의 이익개선 기여도가 6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IT 업종을 제외할 경우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소재(화학·철강), 에너지(정유)와 통신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다.

김 수석연구원은 "올해 기업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이전의 공급과잉과 재고누적 충격이 완화되는 회복의 초기 국면"이라며 "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고, 유통 등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의 확산과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고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 기업실적 전망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 IBK기업銀, 일본계 은행과 6000억 규모 계약

### 원·엔화 커미티드라인 증액 계약
### 금융회사 간 거래서 외화 우선공급
### 한도증액,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은행, 미즈호은행과 약 6000억원 규모의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증액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커미티드라인은 금융회사 간 거래에서 유사시에 외화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필요시 서로 제공하기로 한 한도 내에서 상대국 통화를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일본은행과 원화-엔화 양방향 커미티드라인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한도증액을 결정했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각 일본은행에서 제공받는 한도를 200억엔에서 300억엔으로 늘리고, 두 은행에 제공하는 원화 한도를 각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렸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외화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입거래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유관순 열사 추념메달 /우리은행

## 우리銀 유관순 열사 추념메달 13일까지 판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까지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발행한 추념 메달과 무궁화 입체은화의 예약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매는 대한의 자주와 독립을 염원하며 3.1운동으로 1920년 18세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추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메달 Ⅰ·Ⅱ종 ▲은메달 Ⅰ종 ▲입체은화 등로 구성돼 있다.

추념금메달 Ⅰ·Ⅱ종(금 99.9%, 31.1g, 40mm,)과 추념은메달(은 99.9%, 31.1g, 40mm)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 서대문 형무소, 일제에 항거했던 아우내장터, 태극과 무궁화등의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잠상 이미지도 배치됐다.

무궁화 입체 기념은화(은 99.9%, 31.1g, 43.55x43.47mm)는 싱가포르 조폐국에서 이번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추념메달 출시와 일정에 맞춰 발행된다.

예약접수는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1인당 신청한도는 없다. 선착순 판매로 판매수량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주화를 세 차례에 걸쳐 판매해 왔다.

/안상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5대 금융지주와 조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융위

## 은성수,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 독려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일 5대 금융지주 회장에게 최고경영자(CEO)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직접 발 벗고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만기를 자동 연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엄중한 시기에 5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은행

## 어린이펀드로 경제교육

NH농협은행은 오는 5월 말까지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경제교육 어린이펀드로 시작했쥐~' 이벤트를 실시한다.

농협은행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펀드에 5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문화상품권(5000원권, 1만원권 2종)을 지급한다.

농협은행 WM사업부 신용인 부장은 2일 "어린 시절부터 소액의 용돈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해 경제 개념을 접하도록 하고, 자녀를 위한 미래자금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 신한銀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안전망보험 지원

### 대구·경북 고객 비대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수출기업과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 내 수입기업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95%, 최대 연간 2만 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출안전망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의 업체다. 일반수출과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거래에 대해 1년 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본점에 설치하고,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과 수출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일부터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신한은행 거래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한 쏠(SOL)·인터넷 뱅킹의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의 인출·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나 브랜드 제휴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안상미 기자